

## 한국타이어제조(주)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성공리에 마쳐...

KBS, SBS 방송사와 일간신문사, 케이블 TV 방송사 등 보도진들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홍건희 사장과 임직원을 비롯하여 교통관련단체, 언론단체, 각계 관계자와 일반인 등 3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1초의 시간만 대응할 수 있으면 교통사고의 80%를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26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와 안전운전 시범주행으로 이어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교통안전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인디카레이서 로스 벤트리가 행사에 참가해 안전운전관련 강연 후 준비된 시범차량에 참가자들과 동승하여 설명과 시범주행을 보였다.

특히 빙판길을 달리는 효과와 똑같은 스킨 카(Skid Car)를 참가자들이 직접 운전하며, 안전운전요령과 위험순간을 체험한 것이 펍인

상적이었다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마찰재 사업전개 본격적으로

우리회사가 지난해 마찰재 소재를 생산하는 금산소재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세계 최초의 특수공법으로 각종 마찰재에 사용되는 비석면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소재주식회사를 (주)한타 M&B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마찰재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타 M&B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은 마찰재 제조에 사용되는 비석면 소재인데, 이는 원재료를 특수 환원로에서 가공하는 특별한 공법으로 제조된다. 한타 M&B의 Gramix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에서 특허를 얻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이미 각종 마찰재, 특히 차량용 브레이크패드나 라이닝 제조시 석면 사용이 억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찰재 제조업체는 비석면 마찰재 제조시 사용되는 소재를 미국, 일본 등에서 고가로 수입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커서 아직은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한타 M&B의 Gramix를 사용하게 되면 비석면 소재를 국내에서 상대적인 저가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석면을 사용한 제품보다 성능면에서 월등하게 향상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타 M&B는 이미 멕시코 등지에 소재를 수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검증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재 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 노사 공동 품질향상 결의대회 개최

한국타이어제조(주) 영등포공장은 지난 6월 5일 사무실앞 광장에서 유현덕 공장장과 신동출 노동조합 영등포지부장을 비롯하여 간부사원, 관리직사원, 주간근무조, 근무를 마친 B조사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품질향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진 경과보고에서 최근 불량 증가와 품질 저하에 따른 대내외 품질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노조대의원 및 세계로회와 미래로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사 공동 품질향상 대책위원회(위원장 : 강남국 인사교육팀장, 신동출 노조지부장)를 구성, 이들의 주관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불량과 품질의식을 고취시키고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공정별 불량원인과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주)

중국 남경 왕굉민 시장  
본사 방문

중국 남경시 경제 대표단 및 경제 유치단 일행이 박성용 그룹 명예회장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일 광주공장을 방문하였다.

왕굉민(王宏民) 남경시장의 18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 일행은 7월 1일 오전 9시에 광주공장에 도착하여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기념품을 교환한 뒤 연구소와 제2공장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이어 기자회견장에서 왕시장은 “높은 제품개발 기술력에 놀랐다”며 “현재 남경시에 건설중인 금호타이어 합작공장에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해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전망을 밝게 했다.

곡성공장 장미사진 콘테스트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에 만발한 장미를 주제로 한

‘장미사진 콘테스트’ 전시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었다.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콘테스트는 사원들의 정서함양과 곡성공장의 아름다운 장미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장미축제 행사로서 여러가지 색깔의 장미가 다양한 사진기법으로 촬영되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장미사진 총 270점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29점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는데, 입상작은 다음과 같다.

1등 「꿈상」:

박균철(제조2부 4과)

사우의 ‘즐거운 하루’

2등 「희망상」:

임만기(노무관리과)

사우의 ‘가족’

3등 「사랑상」:

이교환(환경안전과)

사우의 ‘사랑’

장려상 :

김병록(제조2부 3과)

사우의 ‘꿈, 희망, 사랑’

박균철(제조2부 4과)

사우의 ‘장미는 역시

아름다워’

이번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사우들에게는 삼성미놀타 카메라 등이 시상품으로 지급되었다.

정정균 대리 노동부 장관 표창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광주·전남북지역 산재예방 유공자 표창장 전수식’에서 우리회사 정정균(광주공장 환경안전과) 대리가 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정정균 대리는 '90년 5월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래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93년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노동부 장관 단체포상 등을 수상, 재해 없는 직장을 이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다.

또 이날 전수식에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공정개선활동을 통하여 재해율 486%를 감소시킨 곡성공장의 윤병하(환경안전과) 과장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련공정 환기개선을 위한 집진기 증설, 1·2공장 실온유지를 위한 냉방설비 신설 등으로 사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전력투구해 온 박형남(환경안전과) 사우가 대한산업보건협회장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우성타이어 (주)

한일그룹 경영단과 상견례 가져

지난 6월 2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한일그룹의 김중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관리단과 우성그룹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김중원 한일그룹 회장은 “오는 2005년까지 우성과 한일을 발전적으로 통합, 국내 10대 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를 위해 우성 건설을 정상화하여 국내 5대 건설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국내 및 해외건설, 관광, 유통, 기타 부문도 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단시 일내 회사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일그룹은 채권단측과 공동으로 자산, 부채 등 채무 전반에 걸친 실사업무를 수행할 실사단을 7월중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릉지점 이전

지난 6월 7일 강원도지역의 판매확대를 위해 동해시 소재 동해지점을 강릉시로

이전개업하였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중수 전무를 비롯한 당사의 임직원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개업식 행사를 빛내주었다.

박희남 강릉지점장은 개업인사를 통해 지점이전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을 통해 지점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판매확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엑셀교육 실시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본사 교육실에서 전산실 주최로 Microsoft ‘엑셀 5.0’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120여명의 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86PC 환경에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윈도우 사용법과 도표작성, DATA 관리와 분석 등의 내용이 교육되어 기존의 ‘로터스 123’과 함께 PC 업무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덧붙여 전사적인 PC 성능 향상계획에 따라 586PC 도입과 기존의 486PC의 RAM 메모리의 8MB UP, HDD 540MB로 상향조정됨과 아울러 오는 7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주전산기의 ‘IBM AS/400’ 신규 모델로의 대체는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다 진보한 사무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우성타이어(주)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4일 제18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갖고 '95년도 활동보고와 '96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신임 노조위원장으로 이성경 사우를 추대했다.

이날 이성경 노조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9년 한참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80여 조합원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경험을 되살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노조 건설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일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기 대의원대회의 미결사항을 심의하고 상무집행위원을 비롯한 노조의 임원을 선출했다.

우성타이어(주) 여름학교 개설

우성타이어(주)에서는 우성가족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름학교를 개설한다.

금년 여름학교에서는 공장 견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를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아울러 실시한다.